

「오존의 寶庫」 아마존 雨林 “몸살”

최근, 세계산소의 10%를 공급하며 「지구의 허파」 구실을 해온 인류 최고의 밀림인 브라질 아마존 밀림의 개발이 국제문제화 되고 있다.

브라질 정부는 농민에 토지분배와 목축 산업 장려, 발전소건설 등을 위해 세계은행등 국제금융기관으로 부터 차관을 얻어 원시림인 아마존을 개발하고 있으나 지구의 미래를 걱정하는 환경보호론자들과 이미 공해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등 선진국들의 거센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지구상의 우림지역은 서남아프리카와 인도네시아 아마존등 3개지역 총 9백만평방 km로 인류가 숨쉬는데 필요한 산소의 30%를 공급한다. 아마존 우림을 비롯한 브라질의 산림은 이 가운데 5백만평방 km로 브라질 영토의 60%를 차지하며 세계산소의 10%를 공급한다.

최근 수십년간 이상기후로 아프리카와 미주지역의 사막이 확대되고 선진국의 산업으로 공기가 탁해지며 태양열을 차단해 주는 오존층이 파괴되기 시작해 공기와 산소문제가 인류의 큰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 이같은 우려가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브라질 정부가 아마존 개발을 서두르고 있는것이다.

브라질은 64년 군사정권시대 부터 1천4백만 농민들의 토지요구에 대한 정책으로 대지주의 땅을 나눠주는 대신 아마존 우림을 개발해 경작토록 했고 85년 「사르네이」 민간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이 정책을 계속하고 있으며 외화를 벌기 위해 이곳에 목축을 장려하고 있다.

농민들은 이 우림을 경작지로 바꾸기위해 목축업자들은 초지를 조성하기 위해 쉬운 방법으로 불을 놓는다. 또, 수액을 쉽게 채취하기 위해 고무나무가지에 불을 놓는다. 이때문에 아마존 우림지대에선 87년 한해만도 17만건의 방화 및 산불이 일어나 한반도 면적에 가까운 18만평방 km를 태웠고 지난해에도 하루평균 5천건이 발생했다.



지금까지 이같이 불태워진 우림면적은 60만 평방 km로 브라질 전체 산림의 12%나 된다. 브라질 정부는 이곳에 또 대규모 댐건설을 계획하고 있어 이같은 추세라면 멀지 않아 아마존 우림은 완전소실돼 지구 특히, 미대륙에서 산소 부족사태가 날것으로 환경보호론자들은 예측하고 있다.

아마존 유역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브라질 정부는 국제사회의 거센반발로 지난해 10월 ▲ 농업장려중단 ▲ 목재 수출금지 ▲ 환경보호실시등 아마존 보호정책을 발표했으나 이를 강력히 시행할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 국민들은 선진국과 환경론자들의 주장을 「배부른 타령」으로 몰아세우고 우선 먹고 사는 것이 급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선진국들이 공업화로 자기들의 환경을 망쳐놓고 자신들에게 산소공급처를 보호하라는 것은 웃기는 얘기라는 것이다. 이때문에 선진국 일부에선 브라질등 제3세계 우림국가들의 외채를 경감해 주거나 산소값을 지불하자는 제안이 나오고 있으나 환경을 걱정하는 정도가 나라마다 다르고 환경문제를 논하면서도 비용에 인색한 정부들이 이를 받아들이는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새싹들의 하얀얼굴

박은영 / 경남고성여자중학교 3년

새싹이 땅을 비집고 고개를 쏘옥 내밀어 세상이 신기한 듯 두리번 거리고, 이름모를 예쁜 꽃들이 꽃망울을 활짝 터뜨리는 봄.

그러니까, 작년 3월 첫째주 일요일이었나 보다.

학교에서 매달 실시하는 조기청소에 참여하기 위해 아침 일찍 빗자루를 들고 동사무소로 달려갔다.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애들이 와 있었다.

“아, 이제부터 청소 시작이다. 1학년과 2학년들은 동사무소 앞을 청소하고 3학년들은 동사무소 안을 청소하는거야.”

반장 언니의 말에 우리는 자기가 맡은 구역으로 가서 널려 있는 휴지와 쓰레기들을 깨끗이 쓸어 휴지통에 담았다.

널려 있던 휴지가 하나씩 휴지통에 들어갈 때마다 주위는 조금씩 조금씩 깨끗해져 갔다.

“아! 이 맑은 공기, 아침 공기가 정말 상쾌하다. 오늘 아침은 밥 두그릇 먹겠는 걸.”

“은영아, 너 그러다 살찌겠다. 아침 공기 때문에 밥맛이 좋다고 하니 아침에는 아예 문 밖에 일썌거리지도 말아라.”

“뭐라구? 경희 너.”

“하하하하”

우리들은 빗자루와 쓰레기가 담긴 휴지통을 들고 애들이 모인 곳으로 달려갔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 지친 몸을 이끌고 학교하는 길이었다. 그런데 저만치서 이웃에 사는 영호 어머니가 영호를 업고 험레벌떡 달려오고 계시지 않은가?

“아니, 아주머니 무슨 일이 있었나보죠? 영호 손이 왜 이래요?”

영호에게로 눈길을 돌린 나는 깜짝 놀랐다. 영호의 손은 피로 붉

널려있는 휴지가
하나씩 휴지통에
들어갈때마다
주위는 조금씩 조금씩
깨끗해져 갔다.